
 인천광역시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26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담 당 자	• 장애인서비스팀장 • 담당자	정보영 ☎440-2936 임은정 ☎440-293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대상자 늘어나

- 국비 지원 외 시 추가 지원 ... 중증 1,080명, 최중증 24시간 70명으로 확대 -
-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로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 보다 476명이 늘어난 7,47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들의 서비스 시간과 인원도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금액도 시간당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는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인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국비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해, 최대 월 471시간(국비 포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와상·사지마비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독거·취약가구’는 최대 월 465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월 856시간(국비 포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000명에서 1,080명으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추진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이 행복한 공감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